

[지상 일대일강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최승연 집사 (일대일 사역자) / 2002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성도는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해야 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40여명의 기자(記者)가 써놓은 글을 한권으로 묶은 것으로,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에 필요한 지침을 준다.(딤후 3:15~17, 벰전 2:2) 성경의 중심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요 5:39).

우리는 갓난 아이들처럼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한다(벰전 2:2, 눅 8:15).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삶에 적용하며 실천하는 것이다. 일대일 만남에서는 성경을 연구하는 다섯가지 방법(비유로 다섯 손가락의 조화)을 나눈다.

첫째는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인데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다(롬 10:17). 듣고 지키면 인내로 결실하기 때문이다(눅 8:15). 따라서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모하여 들어야 한다(살전 2:13, 행 17:11)

둘째는 성경을 읽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함이다(신 17:19). 성경을 우리 글로 읽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계 1:3)이므로 계획을 세워 성경을 꾸준히 읽도록 하자.

셋째는 감추인 보배를 찾듯이 성경을 연구하는 것으로(행 17:11, 잠 2:4)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함이다(딤후 2:15). 성경 연구를 통해 새롭게 발견한 사실을 기록하면 오랫동안 생각을 보존할 수 있다.

넷째는 성경을 암송하는 것으로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행실을 깨끗케 하고, 말씀을 따라 삼가며, 범죄치 않고, 가르치고 권면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다(신 11:18, 잠 7:3, 시 119:9, 11, 마 4:4, 7, 10, 골 3:16). 성경 구절을 암송하기는 어렵지만 암송한 구절은 내 삶을 주관한다.

다섯째로 묵상을 통해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할 때(눅 6:45) 우리 삶이 복되고(시 1:1~2) 형통케 된다(시 1:3, 수 1:8).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시 119:18, 73, 125)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며, 사랑의 총체이다.

친밀한 교제의 수단

기도는 말씀 안에서 뜻깊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완성케 한다. 그분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로써 응답하며 마음을 나눈다. 즉 하나님을 일대일로 만난다(히 4:14~16). 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우리는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예수를 믿는(히 11:6)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만 해야 하고(요 14:6, 요 16:24), 때로는 은밀한 중에,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하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며(마 6:6,7),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요 14:13). 기도는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고, 내 소원을 이루게 한다(빌 4:6~7). 기도할 때 예수님과 성령님은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시는데 이는 우리를 위함이다(롬 8:26~27, 34, 딤펴전 2:5). 따라서 우리는 매일 특별한 시간을 정해 개인적으로나 그룹으로 기도해야 한다.

기도에도 다섯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성품과 특성을 인정하고(역사 29:11, 사 59:1~2), 우리 죄를 고백하며(요일 1:9, 시 32:5),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하며(엡 5:20, 시 10:4), 다른 사람의 상황을 알아 그들의 필요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며(골 1:9~12, 4:2~4, 야 5:16, 딤펴전 2:2), 자신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마 7:7~8, 야 4:2,3)이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요 15:7) 구하면(요 14:14, 16:24) 하나님께서 시행하시고 이루신다. 이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구하는 것을 다 받는다 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마 21:22).

* 출처 - 온누리신문